

부산교구 박상범·이형규 신학생 4월 2일 인디애나서 부제서품



4월 2일 부제서품을 앞둔 부산교구 박상범(오른쪽)·이형규 신학생

세인트마린라드신학교 성당

부산교구 박상범(요셉)·이형규(요셉) 신학생이 4월 2일 오전 10시 인디애나주 Saint Meinrad Seminary and School of Theology 성당에서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 Joseph W. Tobin 대주교 주례로 부제서품을 받는다.

박상범(요셉) 신학생은 2006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 2012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 8월 세인트 마린라드 신학교에 입학했다.

박 신학생은 "부제서품 청원서를 한 자 한 자 옮겨 적으며 문득 2006년에 신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외쳤던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이 생각났다"며 "간절히 바랐던 신학교의 생활이었기에, 들뜬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첫 응답을 했던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박 신학생은 "하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며 "1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준비했기에 그 기대와 열정이 가득하지만, 이 귀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는 박 신학생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다시 한번 힘차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님께 응답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형규(요셉) 신학생은 2007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 2012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 8월 세인트 마린라드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형규 신학생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말씀과 봉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사제품에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우 리오

“믿음 부족은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피정 가져

“끈기 갖고 치유 간청해야”
5개 한인분당 76명 참가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회장 임지현)는 3월 12일 북가주 오크빌에 위치한 Carmelite House of Prayer에서 피정을 가졌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네가 불렀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나에게 알려 주겠다”(예레 33,3)를 주제로 북가주 지역 5개 한인성당에서 76명이 참가한 피정은 국제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회 로버트 캔톤 씨 강의로 진행됐다.

캔톤 씨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함께 계신다”면서 30여 년 전 피정 참석을 계기로 믿음이 부족했던 자신과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간 과정을 들려줬다. 캔톤 씨는 또 “하느님의 은총을 잘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 치유의 은총을 받는 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며 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강조했다.

이어 캔톤 씨는 “용서하지 못함(미움, 증오, 원한)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 건강에 독이 된다”며 “믿음의 부족은 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의인의 기도(야고 5,16)처럼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낸다고 강조했다. ‘모령 성체’, ‘미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아끼지 않은 캔톤 씨는 “우리가 치유를 바라지만 정작 치유자인 예수님을 찾지 않아 안타깝다”며 치유기도에 대한 부족함,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간청할 것을 당부했다.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최 피정 참가자들이 피정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피정 참석자들은 “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고, 주님께 청하는 은사를 성장시켜 주고, 각자 원하는 지향을 담아 예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피정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각자 마음 급한 일도 많고, 우선시 되는 일도 많은데 피정 동안 일

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파견미사에서 최승근 신부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10년 후 멕시코 전역에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 수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그 이유는 멕시코 인디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

모님이 그들의 찢겨진 마음과 상처를 아무런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령 기도회원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속한 단체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 속한 분당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원종욱 디아블

협회지 ‘미주가톨릭문학’ 창간한다… 신인상 제정도

미주가톨릭문인협회

6월 30일까지 작품 모집

미주가톨릭문인협회(회장 정찬열)는 지난달 신년하례를 겸한 모임을 갖고 2016년도 사업 등 각종 현안을 토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소설가, 수필가 등 현재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많은 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사업으로 ▲제3회 미주가톨릭문학상 ▲미주가톨릭문학 창간호 발간 ▲신인상 공모 등 사업을 논의, 확정했다.

미주가톨릭문인협회의 각종 소식과 작품을 담은 「미주가톨릭문학」에는 북미주(미국,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작품을 한데 모으고, 각 지역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협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 부문은 시(시조, 동

시 포함), 수필, 동화, 단편소설(공트 포함) 등 1편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이윤홍(부르노·bruhong@gmail.com) 회원에게 보내면 된다. 또 미주가톨릭문인협회는 ‘신인상’을 제정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일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신인상 모집부문은 ▲시, 시조, 동사- 5편 이상 ▲수필(200

자 원고지 15매 내외) 3편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0자 내외) 1편 ▲동화(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편이다. 원고 마감은 6월 30일까지.(6월 30일 소인 유효) *접수처 715 S Oxford Ave #105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700-6667 (사무국장), noproblem1018@daum.net



깨어나는 기도 (24)

제2부 현존

-성각 속에서 머물기(창세기 5주간)

6장에서 10장②-말씀 선택(묵상 나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이 선택한 말씀에 충실히 머무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묵상나눔을 합니다. 이 묵상은 제가 실제로 초보자였을 때에 했던 묵상기도 하고, 기도순서대로 기도를 따라가게 되는 대략적인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 기도 중에 들어오는 생각 하나가 저를 이해시키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끌려지는 모습과 이어서 주님의 손길이 제 나뭇의 깨달음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통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창세기 3장)를 읽고는 '고통'이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씀을 자주 떠올리면서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아담과 하와의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벼락같이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고통이었을까요?' 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 그림처럼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거기에 머물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그들이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에 저 자신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맛아오, 주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본 사람들에게 고통이지요.” 그러나 죽음을 겪어본 사람에게 고통이냐, 이미 죽은 것이라고 앞으로 예고된 그런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그다지 절실하게 다가온 아픔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고통이었을까요?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리움’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움? 무엇이 그리운 것이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묻다보니 어느덧 마음속에, 에덴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허물었이 바라보고 있는 아담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아이가 에덴을 잇을 만한 위로라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과 하와가 그려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 맞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에덴을 그리워했겠네요.” 정말 그들이 에덴을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움이라고 떠올리니, 제 마음도 마치 제가 당한 것처럼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단하게 일을 하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그들의 일상이 제 마음 안에서 분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갑자기 확실하게 마음이 밝아지며 거뺄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으로는 그들의 한 가운데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에덴의 답장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운데 있는 아이만을 바라보며, 웃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고의 고통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그 순간 벼락같이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떠나서 살게 될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에는, 그 고통을 덮어줄 수 있는 커다란 기쁨도 함께 주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들이 에덴의 바깥으로 내쫓겨서 살아가야 함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는 이렇게 자식이 주는 큰 위로와 기쁨이 마련되어 있었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염려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라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위로 받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아이가 에덴을 잇을 만한 위로라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고통들이, 제가 제대로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아파드고만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해도 제 고통 가운데도 틀림 없이 주님께 사랑 받은 그런 기쁨과 위로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은정 레오나라 (남가주 오렌트 교구 St. Irenaeus 본당)

토론토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in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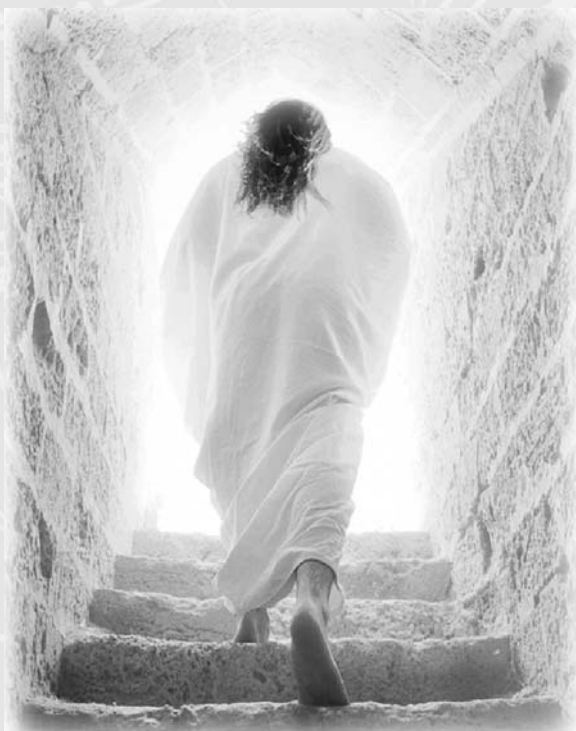
- 주임신부 최규식 그레고리오
- 보좌신부 박민규 안티고노
- 종신부제 김지일 미카엘
- 본당수녀 진은심 콘체사, 박지민 마리아곱

849 Don Mills Rd. North York, ON M3C 1W1 CANADA

☎ 416-447-4078 팩스 416-447-6106

www.st.kimtoronto.org

toronto.andrewkim@gmail.com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20,2나)

토론토 예수 성심 천주교회

Sacred Heart of Jesus Parish

- 주임신부 박지곤 세레자 요한
- 본당수녀 이 안젤리나, 강 휘앗

296 Judson St. Toronto, ON M8Z 5T6 CANADA

☎ 416-259-5601 팩스 416-259-6339

www.shjparish.ca

shjp@shjparish.ca